

영어 정관사에 대한 교육 문법적 이해¹

양 현 권
(서울대학교)

Yang, Hyun-Kwon (2008) A Pedagogical Understanding of the English definite Article: An 'Educational Grammar' Perspective.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1*, 66-83.

The is the commonest word in English. This word is also known as one of the most difficult grammatical items for Korean learners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his paper focuses on the non-generic use of the English definite article, and examines the grammatical descriptions of the article in *Advanced English Grammar* and *English Grammar in Use*. It reveals that some of the important usages of the definite article are not included in 'the grammar books', and observes, following Park and Song (2001), that these unlisted usages cause much difficulty for Korean learners to improve accuracy in the article use. Underscoring the organic view of language, the paper proposes that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understanding of 'grammar' is prerequisite for optimum efficiency in teaching the English definite article to Korean EFL learners.

1. 서론

영어의 관사 체계는 외국어로 영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어 학습자들에게 그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다고 여겨진다. 그동안 우리나라 영어 교육 분야에서는 적지 않은 연구에서 영어 관사 학습의 어려움에 주목하여 왔고, 다양한 차원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 문법 관련 문헌에 정관사에 관한 정보가 어떠한 체계 및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영어 문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영어 교육의 효율성과 성공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둔다. 이러한 노력은 이른바 '교육 문법론(Educational Grammar)'의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¹ 이 연구는 2008 학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맥락에서 살피는 기회가 될 것이다.²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영어 정관사 학습 양태를 연구한 Song 과 Park(2001)의 관찰과 논점을 그 주된 경험적 바탕으로 삼는다.

II. 본론

영어에서 정관사는 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이다. Berry(1993)에 따르면, 영어 말뭉치 자료에서 정관사의 빈도는, 부정관사의 빈도와 합하면, 거의 8.5%에 달한다.

The is by far the commonest word in English, and with *a* and *an* makes up 8.5% of all text. (Berry, 1993, p. v)

따라서 정관사를 제대로 학습하는 일은 영어를 외국어로 익히는데 있어서, 특히 정확성을 배양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정관사는 한국어로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어 학습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항목이다. 신용진(1980)과 박기화(1994) 등에 따르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정관사의 사용에 있어서 오류 비율이 매우 높다.

정관사 학습의 어려움과 관련된 교육적 의문 가운데 한 가지는 ‘어려움의 원인’이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영어 정관사의 언어적 특성이 한국어의 언어적 체계와 매우 달라 학습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다(강행구, 2001. pp. 12-15).

정관사 학습의 어려움의 원인을 언어 특성보다는 교육 실제에 초점을 두어 살펴 볼 수도 있다. 이를테면 강행구(2001)에서는 어려움의 원인을 영어 교사들과 학습자들의 관사에 대한 관심과 인식 부족에서 찾는다.

본 연구에서는 정관사 학습의 어려움의 원인을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교육 내용에서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관사에 관한 문법 정보가 학습자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영어 정관사에 대한 교육은 흔히 정관사의 언어적 특징을 목록화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근년에 들어 우리나라 영어 교육 현장 특히 공교육의 실제에서는 예전과는 달리 문법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그보다는 의사소통과 상호 작용이 강조된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및 학교 수업 실제의 여러 국면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² ‘교육문법론’은 ‘교육을 위한 문법(Pedagogical Grammar)’에 대안으로 양현권(2008)에서 제안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영어학습자들이 정관사에 대한 문법 지식을 교실의 수업 과정에서 익혔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영어 문법 정보에 대한 학습이 교실 학습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습자들이 영어 정관사에 대한 문법 정보를 익힐 수 있는 다른 경로는 영어 문법 문헌 또는 영어 문법 교재 및 이에 기반을 둔 학습 활동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가 정관사에 대한 문법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영어 문법 관련 문헌 및 이를 활용한 학습 활동일 것이라고 전제하고,³ 이들 관련 문헌에 제공된 정관사 문법 정보를 이른바 비충칭적(non-generic) 용법에 초점을 두어 살핀다.⁴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이 정관사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교육과 학습의 내용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1. 문법 문헌에서의 영어 정관사

영어 문법 문헌에서는 예외 없이 영어 정관사를 중요한 항목으로 다룬다. 2008 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문법 교육 문헌은 그 양이 방대하며 특징과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헌 가운데 문용(1987)의 ‘고급영문법해설’과 Murphy(2004)의 ‘English Grammar in Use’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들 두 문헌은 영어 문법 전반을 ‘교육적’ 관점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 및 영어 교육 전문가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공통적 특징을 지닌다.

1) ‘고급영문법해설’

‘고급영문법해설’에서는 제 8 장 관사편의 3 절에서 정관사를 다루고 있다. 다음은 이 문헌에 제시된 정관사의 주요 용법을 옮겨온 것이다.

(1) 이미 나온 명사를 되풀이 할 때

³ 우리나라 공교육 현장의 실재를 미루어 볼 때, 특히 고등학교의 영어 수업에서는, 최근에도 영어 문법 정보에 대한 학습이 교실 학습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영어 정관사의 문법 사항에 대한 학습과 교육의 바탕은 영어 문법 문헌 또는 영어 문법 교재에 제공되는 정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가 영어 정관사에 대한 문법 정보를 기본적으로는 영어 문법 관련 문헌을 통해 얻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점은 크게 무리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⁴ 영어의 정관사의 쓰임새는 충칭적 용법과 비충칭적 용법으로 나뉜다. 이 논문에서는 비충칭적 용법에 초점을 두고, 충칭적 용법에 관한 논의 및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미룬다.

Here is a glass, some water, three coins. Watch! I put **the** water into **the** glass, then drop **the** coins one by one into **the** water.

- (2) 명사 다음에 나오는 어구가 명사를 특정화할 때

My office is **the** room on your right.

The water in the glass has now turned pink.

The light is on in the dining room.

The coat you gave me isn't mine.

- (3) 외부적인 상황으로 미루어, 화자가 가리키는 사람이나 사물이 분명할 때

A: There's someone at **the** door. Don't you hear **the** bell?

B: Perhaps it's **the** milkman. No, it's **the** postman.

- (4) 형용사의 최상급, 서수(first, second, third, ...), next, same 등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그 명사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게 되므로 the가 붙는다.

New York is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That's **the** third time you've trodden my toe.

The same thing happened to me yesterday.

- (5) 어떤 종류나 종족 전체를 나타낼 때(generic use)

The dog is a faithful animal.

The eagle is the king of birds.

- (6) 동일 종류에 속하는 것이 하나 밖에 없는 다음과 같은 명사 앞에 붙인다.

the sun, **the** moon, **the** earth, **the** universe, **the** Lord(=God),
the Pope,

the Almighty, **the** Devil(=Satan), **the** Bible

- (7) of+명사구의 수식을 받아 원래 관사가 붙지 않는 명사에 정관사를 붙인다.

the history of the world cf. world history

the paper of Canada cf. Canadian paper

the literature of America cf. American literature

the supervision of the United Nations cf. United Nations supervision

- (8) 보통명사와 결합해서 추상적 의미를 나타낸다.

succeed to **the** crown(왕위를 계승하다)

be destined for **the** church(목사가 될 운명이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All **the** mother in her awoke.

- (9) 두 명사의 대조를 드러낼 때
the sea vs. the land
 living in the town vs. living in the country
the left vs. the right
- (10) 기타 관용적 표현에서
 I slapped him in the face.
 She held me by the sleeve, and wouldn't let me go.
- (11) 특수한 부사적 표현에서
 I loved him all the better for his faults.
The sooner, the better.

영어 정관사에 대한 '고급영문법 해설'의 이러한 기술은 영어 문법 교육을 주된 관심사로 삼는 다른 문헌에서와 다르지 않다. 'English Grammar in Use'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활용되는 문법 학습 교재 가운데 한 가지이다.

2) 'English Grammar in Use' (3rd. Edition)

'English Grammar in Use'에서는 Unit 72 에서 정관사를 부정관사와 대비하여 제시한다. 다음은 정관사에 관한 기술 가운데 주요한 부분을 옮겨 온 것이다.

Compare a and the in these examples:

A man and a woman were sitting opposite me. The man was American, but I think the woman was British.

When we were on holidays, we stayed at a hotel. Sometimes we ate at the hotel and sometimes we went to a restaurant.

위에 제시된 정관사의 용법은 이른바 '대용 용법(anaphoric use)'으로, '고급영문법해설'의 첫 번째 항목에 상응한다.

'English Grammar in Use'에서는 대용 용법에 더하여 다음 용법을 제시한다.

We use the when we are thinking of a specific thing. Compare a/an and the:

Tim sat down on a chair. (perhaps one of many chairs in the room)

Tim sat down on the chair **nearest the door**. (a specific chair)

Paula is looking for a job. (not a specific job)

Did Paula get **the** job **she applied for**? (a specific job)

Have you got **a** car? (not a specific car)

I cleaned **the** car yesterday. (= my car)

이 용법은 ‘고급영문법 해설’의 두 번째 항목과 세 번째 항목에 해당한다. 세 번째 항목과 관련하여 'English Grammar in Use'에서는 다음 설명을 제시한다.

We use **the** when it is clear in the situation which thing or person we mean. For example, in a room we talk about **the** light/ **the** floor/ **the** ceiling/ **the** door/ **the** carpet etc.:

Can you turn off **the** light, please? (=the light in this room)

I took a taxi to **the** station. (=the station in that town)

'English Grammar in Use'에서는 Unit 72 에 이어 Unit 73 에서도 정관사의 용법을 제시한다. 다음은 그 첫 항목이다.

We use **the** when there is only one of something:

What is **the** longest river in **the** world? (there is only one longest river)

The earth goes round **the** sun and **the** moon goes round **the** earth.

Have you ever crossed **the** equator?

I'm going away at **the** end of this month.

위에 제시된 용법은 ‘고급영문법 해설’의 네 번째와 여섯 번째 용법에 해당한다.⁵

이상에서는 영어 정관사의 비총칭적 용법에 관한 문법 기술 내용을 '고급영문법 해설'과 'English Grammar in Use'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문헌은 문법 내용의 시 방식에 있어서 공통된 특징을 지니는데, 그것은 바로 정관사의 언어적 특징을 구체적 ‘용법’으로 목록화하여 나열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어적 특징으로서의 문법 정보의 목록화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항목화된 낱말의 특성을 인지하고 익히는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목록화된 정보는

⁵ ‘고급영문법해설’에 제시된 정관사의 용법 가운데 다섯 번째 용법은 이른바 총칭적 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논문의 주된 논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장점과 더불어 단점을 지닌다. 첫째, 어떤 언어적 정보가, 우연히 또는 특별한 사유로, 목록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들 용법의 학습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둘째, 목록화된 문법 정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개개 목록의 학습을 도울 수는 있지만 해당 문법 항목의 전반적 체계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는 적극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2. 목록화된 문법 정보와 영어 정관사 학습

Song 과 Park(2001)은 한국인 대학생들의 영어 정관사의 학습 정도와 양상을 비충칭적 용법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제시된 흥미로운 관찰 가운데 한 가지는 학습자들이 영어 능숙도 차이와는 상관없이 정관사의 특정한 용법에 대해서는 높은 정확도를 보인 반면 또 다른 특정한 용법에 대해서는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다음은 높은 정확도가 관찰된 경우에 대한 언급을 Song 과 Park(2001)에서 옮겨온 것이다.

'Superlatives,' 'Anaphoric uses,' 'Wider situational uses,' and 'Referring to unique items' are also the usage types where both proficiency groups showed high accuracy rate around 80% without significant difference. In this case, the high accuracy rate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se usage types are not so complex to learn and often taught in the classroom.⁶

위에 언급된 ‘최상급 표현’ (superlatives), ‘대용’ 용법(anaphoric uses), ‘외부 상황 맥락’ 용법(wider situational uses) 및 ‘유일물 지칭’ 용법(referring to unique items) 등은 ‘고급영문법해설’ 및 'English Grammar in Use'의 정관사에 관한 문법 기술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⁶ Song 과 Park(2001)에서는 영어 정관사의 비충칭적 용법을, Hawkins(1978)와 Berry(1993)에 근거하여, 모두 12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다음은 'superlatives', 'anaphoric uses', 'wider situational uses'와 'referring to unique items'의 각각의 예를 Song 과 Park(2001)에서 인용한 것이다:

The first person to sail to America was an Icelander.

But then I came on a man playing harp. It was a black harp ... and **the** man was dressed as a gorilla!

I've got to collect my husband from **the** station.

After a while **the** sun gets warmer.

학습자들은 이들 용법을 문법 관련 교재 및 관련 학습 활동 등을 통해서 익혔을 것으로 추정된다.⁷

Song 과 Park(2001)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of-어구에 의한 특정화’ 용법(nouns quantified by of-phrase), ‘연관 대용’ 용법(associative anaphoric uses), ‘동격’ (appositives) 용법과 ‘추론적 상황’ 용법(surrounding situational uses) 등에 대해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Song 과 Park(2001)에서와는 달리, ‘of-어구에 의한 특정화’ 용법을 낮은 정확도를 보인 용법의 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그 까닭은 이 용법에 대하여 실험 대상인 학습자들이 적어도 60% 정도의 정확도를 보인 한편 다른 세 용법에 대해서는 50% 또는 그 이하의 정확도를 보였기 때문이다.⁸

다음은 한국인 대학생들이 학습상의 어려움을 느끼는 용법 가운데 ‘연관 대용’ 용법과 ‘추론적 상황’ 용법의 예를 Song 과 Park(2001)에서 인용한 것이다.

You live in Paris. The address is in your passport.
Don't go in there, Chum. The dog will bite you.

Song 과 Park(2001)에서는 이 두 용법의 학습상의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Associative anaphoric uses' and 'Surrounding situational uses' are the usage types where both the proficiency groups shows low accuracy rate. 'Associative anaphoric uses' is more complex usage than 'Anaphoric uses' and is not particularly taught in the classroom.

이들 ‘연관 대용’ 용법 및 ‘추론적 상황’ 용법은 영어 교육을 위한 문법 관련 문헌에 정관사의 주요 용법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면, 이들 용법에 대해 정확도가 낮은 까닭은 이들 용법을, 문법 문헌 및 문법 관련 학습 활동을 통해서, 익힐 기회가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Song 과 Park(2001)은 ‘동격’ 용법의 학습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유사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⁷ Song 과 Park(2001)은 학습자들이 이들 용법을 교실에서의 학습 활동을 통하여 익혔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⁸ ‘of-어구에 의한 특정화’ 용법에 대한 본 논문의 구체적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 절을 참고하기 바람.

'Appositives' is the usage where both the low and the high group showed low accuracy rate.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is usage type is not highly frequented, and thus the students have little chance to be exposed to this kind of usage.

문법 교육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정관사의 '동격' 용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곧 학습자들이 문법 문헌 및 문법 관련 학습 활동을 통해서 이 용법을 익힐 기회가 적었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정관사의 여러 용법 가운데 '연관 대용' 용법 등의 특정 용법에 대해 낮은 정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특정 용법이 문법 교육 관련 문헌의 문법 내용 기술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영어 문법 관련 문헌을 '교육적'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살펴보면, 일부 전문 문헌에서는 영어 정관사의 언어적 특성을 보다 확장된 맥락에서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문헌에서는 '고급영문법해설' 및 'English Grammar in Use' 등의 문법 교육 관련 문헌에서 초점을 두지 않았던 용법을 포괄하고 있다.

Quirk et al.(1985)의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에서는 제 5 장 'Nouns and Determiners'의 일부에서 정관사를 다루고 있다. 다음은 이 문헌에 제시된 정관사 관련 기술을 항목 중심으로 옮겨온 것이다.

- (1) Immediate situation
- (2) Larger situation (general knowledge)
- (3) Anaphoric reference: direct
- (4) Anaphoric reference: indirect
- (5) Cataphoric reference
- (6) Sporadic reference
- (7) The 'logical' use of *the*
- (8) The use of *the* with reference to body parts

위 항목 가운데 '간접적 대용' 용법(anaphoric reference: indirect)은 '고급영문법해설' 과 'English Grammar in Use'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다음은 그 용례이다.

Alec bought a new bicycle but found that *the frame* was scratched.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Song 과 Park(2001)의 연구에 따르면, 이 용법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에게서 낮은 정확도가 관찰된 항목이다.

영어 정관사의 용법을 보다 확장된 시각에서 다룬 문헌으로는 Berry (1993)의 'Collins Cobuild English Guides 3: Articles'도 있다. 이 문헌에서는 제 4 장에서 정관사를 다루고 있는데, 다음은 이 문헌에 제시된 정관사의 기술을 항목에 초점을 두어 옮겨온 것이다.

- (1) Referring to a particular thing
- (2) Referring back to something mentioned before
- (3) Something mentioned before using another noun
- (4) Things associated with a previous mention
- (5) Surrounding situation
- (6) Wider situations
- (7) Referring to unique items
- (8) Nouns with quantification
- (9) Nouns qualified by an 'of'-phrase
- (10) Superlative adjectives
- (11) Unique adjectives
- (12) Using the definite article at the beginning of stories
- (13) Stressed 'the' meaning 'best'

위 용법 가운데 항목 (4)와 (5)는 ‘연관 대응’ 용법과 ‘추론적 상황’ 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통적’ 문법 기술에서는 제외되었던 항목이다.

이제 다시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의 정관사 학습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 보자.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은 정관사의 여러 용법 가운데 특정 용법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높은 반면 또 다른 특정 용법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낮다. 앞선 논의 내용을 정관사 학습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어 정리하면, 학습자들은 ('고급영문법해설'과 'English Grammar in Use' 등의 이른바) 문법 교육 관련 문헌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용법에 대해서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느낀다.⁹

이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정관사의 특정 용법—‘연관 대응’ 용법과 ‘추론적 상황’ 용법 그리고 ‘동격’ 용법—이 왜 문법 교육 관련 문헌의 기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이들 ‘제외된’ 용법 가운데 먼저 ‘동격’ 용법에 대해 살펴보면, 이 용법은 문법 교육 관련

⁹ Song 과 Park(2001)에는 본 논문에서 초점을 두는 용법 이외의 여러 용법에 대한 학습 난이도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문헌에서만이 아니라 문법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문헌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동격' 용법이 우연한 이유로 배제되었거나 혹은 별도의 항목으로 언급될 만큼 중요하다고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연관 대응' 용법과 '추론적 상황' 용법은 - '동격' 용법과는 달리 - 문법을 포괄적으로 다룬 문헌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고급영문법해설' 과 'English Grammar in Use' 등의 문법 교육 관련 문헌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들 두 용법이 문법 교육 관련 문헌에 주요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까닭은, 이들 용법이 지니는 언어적 특성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용법은, 문법 교육 관련 문헌의 정관사의 주요 목록에 '포함된' 용법과 비교하면, 단순한 목록화를 통해 그 특성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다음은 '연관 대응' 용법으로 사용된 정관사의 예이다.

You live in Paris. **The** address is in your passport.

이 용법은 담화 맥락과 '연관' 된 특징을 지닌다. 즉, 두 번째 문장에 사용된 정관사 용법은 앞선 맥락에서 'address' 와 관련된 담화 정보도 도입되었음을 전제한다. 이 용법과 관련된 이러한 문법 내용은 '구조적' 특징으로 목록화하여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연관 대응' 용법의 이러한 '담화 맥락' 의존적 특성은, '포함된' 용법의 '구조적' 특징과 대조해 살펴보면, 매우 두드러진다.

New York is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My office is **the** room on your right.

위 예는 각각 '최상급 명사구' 용법 및 '특정화된 명사구' 용법이다. 이 예들에서의 정관사의 용법의 특징은 '담화 맥락' 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문장 구조' 와 관련되어 있다. 즉, 정관사의 용법에 관한 기술이 첫째 예에서는 최상급 '구문 - largest' 이라는 구조상의 특징 - 과 관련되고 둘째 예에서는 명사 표현의 특정화 '구문' - room 이 on your right 에 의해 수식되어 특정화된다는 구조상의 특징 - 과 관련된다.¹⁰

¹⁰ 정관사의 용법 가운데 '담화 맥락' 과 연관된 쓰임에 대하여, Quirk et al.(1985)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부가하고 있다.

Given that the use of *the* relies on shared knowledge, there are several ways in which the identity of the referent may be determined or 'recovered' by the hearer, as we shall see in 5.28ff.

즉, 정관사의 쓰임새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담화상의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는데, 이는 곧 정관사의 쓰임이 담화 맥락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실천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는 정관사의 용법 가운데 ‘담화 맥락’ 적 특성을 지녀 ‘구조적’ 목록화를 통해 제시하기 어려운 항목을 어떻게 학습자에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 가지 방안은 이들 용법이 담화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이들을 ‘담화’ 특징에 초점을 두어 목록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정관사의 용법을 보다 포괄적으로 다룬 문법 문헌에서 제시되어 있다. 즉, 이들 문헌에서는 담화 맥락과 관련된 용법을 담화 특징에 초점을 두어 목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연관 대응’ 용법 및 ‘추론적 상황’ 용법 등의 목록 및 이에 관한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목록화는 이들 용법을 학습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담화’ 맥락적 특징으로 목록화되는 정관사의 용법은 ‘구조적’ 으로 목록화되는 정관사의 용법과는 달리, 목록 자체의 명칭과 특징적 기술이 해당 용법을 효율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연관 대응’ 용법을 예로 삼아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You live in Paris. **The** address is in your passport.

위에 예시된 정관사의 용법을 ‘연관 대응’ 이라는 특징으로 목록화하여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학습자들에게 ‘연관 대응’ 용법의 학습을 위한 충분한 바탕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까닭은 학습자로서는 ‘연관 대응’ 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이 용법의 언어적 특징이, 구조적 특징으로 목록화되는 ‘포함된’ 용법에서와는 달리, 각각의 개별 담화 맥락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즉, 학습자들로서는 담화 맥락적 특징으로 기술된 목록만으로는 해당 용법의 쓰임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어렵다.

그러면, 담화 정보와 밀접히 관련된 정관사의 용법을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또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이들 용법의 구체적인 쓰임새를 세부 맥락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안은 교육적 효율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습자로서는 이들 용법을 하나하나 구체적 실례를 통하여 익혀야 하기 때문이며, 이를 학습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학습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정관사의 용법 가운데 담화 정보와 관련된 용법은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구조적’ 으로 목록화하여 나열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III. 교육문법론의 시각에서 본 영어 정관사 교육

영어 정관사의 언어적 본질에 대해서는 그동안 영어학 특히 영어의미론과 화용론 분야에서 중요한 관찰이 제시되어 왔다. 그리고 문법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문법 문헌에서는 이들 연구 성과를 정관사의 핵심적 특성으로 개념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Quirk et al. (1985)에서는 정관사의 용법에 대한 소개를 다음과 같은 기술로 시작한다.

The definite article *the* is used to mark the phrase it introduces as definite, i.e., as referring to someone which can be identified uniquely in the contextual or general knowledge shared by speaker and listener.

Quirk et al. (1985)에 따르면, 정관사의 통괄적 특성은 'identifiable'과 'knowledge shared by speaker and listener'이다.¹¹

한편 다음은 'The Grammar Book'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 또한 영어 정관사의 특징을 포괄적 개념으로 기술하고 있다.

Basically, you use **the** when you think your listener will be able to identify the thing you are referring to, whether or not it has been explicitly referred to before. Otherwise, you use **a** or **an** (if you are referring to one thing using a count noun).

이상에 언급된 정관사에 대한 이해를 종합하면, 영어의 (비총칭적 용법으로서의) 정관사의 본질은 '언급되는 대상의 확정 가능성'이 (화자와 청자사이에) 전제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개념적 전제를 '대상 확정 가능성'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달리 말하면, (비총칭적 용법으로서의) 정관사의 핵심적 본질은, '포함된' 용법이던 '제외된' 용법이던, '대상 확정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정관사의 효율적 학습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관사의 개념적 본질이 학습 내용에 반영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담화

¹¹ 정관사의 용법에 관한 이러한 총괄적 관점의 이해는 Collins Cobuild English Guides 3: Articles 에도 제시되어 있다. 문헌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관사의 비총칭적 용법을 'identifiable'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한 관점은 Hawkins(1978)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맥락과 연관된) ‘제외된’ 용법에 대한 학습을 돕기 위해서는 정관사의 본질로서의 ‘대상 확정 가능성’을 학습 내용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관사의 용법 가운데 담화 맥락과 관련된 내용은 목록화를 통하여 교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맥락을 통하여 해당 용례를 일일이 학습하게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담화 맥락 정보와 밀접히 관련된 쓰임새 하나하나를 구체적 맥락을 통하여 학습하는 일이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본질적 개념으로 기술된 정관사의 특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학습자로 하여금 정관사의 기본 개념으로 ‘대상 확정 가능성’을 익히게 함으로써 정관사의 본질적 특성을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학습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¹² Song 과 Park (2001)에서는, 정관사의 담화 맥락 연관 용법의 학습을 돕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를 제안하고 있다.

'Associative anaphoric uses' and 'Surrounding situational uses' are the usage types where both the proficiency groups shows low accuracy rate. 'Associative anaphoric uses' is more complex usage than 'Anaphoric uses' and is not particularly taught in the classroom. In addition, it is the usage type that more systematic teaching on the definite article is called for since the concept, 'identifiability' seems required to understand this usage type.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다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연관 대응’ 용법으로 사용된 정관사의 예이다.

You live in Paris. **The** address is in your passport.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위에 예시된 용법을 ‘연관 대응’이라는 특징으로 목록화하여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학습을 돕기 위한 충분한 바탕을

¹² ‘대상 확정 가능성’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는데 있어서, 이 개념의 학습 가능성 자체가 의문시될 수 있다. 즉, 인지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학습자에게 ‘대상 확정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학습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영어전공)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2008 학년도 1 학기와 2 학기에 서울 신림중학교 2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연구의 중간 결과에 따르면, ‘대상 확정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이들 학생들에게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연구 보고가 타당한 것이라면, 영어 정관사 교육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과제는 ‘대상 확정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자의 인지 수준에 알맞게 도입하고 활용할 것인가이다.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돕기 위해서는 정관사의 본질적 핵심을 학습 내용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관사의 핵심 학습 내용으로 ‘대상 확정 가능성’을 도입하고 학습자가 이를 학습하게 되면, 정관사에 대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테면, 정관사의 본질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대상 확정 가능성’을 인식한 학습자로서는 ‘연관 대응’ 용법으로 쓰인 정관사가 구체적으로 다른 장면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를 예상할 수 있고, 이는 곧 정관사에 대한 학습이, 단편적 사례의 인식과 암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방안은 ‘제외된’ 용법만이 아니라 ‘포함된’ 용법에도 적용된다. 다음은 ‘고급영문법해설’에 정관사의 주요 용법으로 제시된 항목을 옮겨온 것이다.

이미 나온 명사를 되풀이 할 때

Here is a glass, some water, three coins. Watch! I put **the** water into **the** glass, then drop **the** coins one by one into **the** water.

‘포함된’ 용법을 학습자에게 제시함에 있어서 의미화용적 특성으로서의 대상 확정 가능성’에 초점을 두면 학습자들은 정관사의 본질을 보다 체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학습하게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문법 정보 제시 방안은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에게 학습 난이도가 높은 정관사의 특정 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앞에서, Song 과 Park(2001)의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어, 한국인 대학생들이 ‘동격’ 용법과 ‘of-어구에 의한 특정화’ 용법에 낮은 정확도를 보임을 언급하였다.

이 가운데 ‘동격’ 용법은, 앞 절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문법 문헌 전반 및 문법 교육과 관련된 문헌에 정관사의 주요 용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용법의 학습을 돕는 방안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용법을 정관사의 주요 문법 정보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과 더불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과 같이, ‘동격’ 용법이 지니는 개념적 특성, 즉 ‘대상 확정 가능성’을 교육 학습 장면에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래 예문은 ‘동격’ 용법을 예시한 것으로, Song 과 Park(2001)에서 가져온 것이다.

And he wrote a book with the title, 'The Summing Up.'

이 용법을 교육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그것은 위에 예시된 동격 구문에서 동격으로 도입된 표현— ‘The Summing Up’—이 그에

앞선 표현-title-의 지시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즉, 동격 구문이 지니는 본질적 의미 특성을 학습하게 함과 아울러 정관사의 본질적 특징으로서의 ‘대상 확정 가능성’을 학습하게 하면, ‘동격’ 용법에 대한 학습은 보다 체계적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of-어구에 의한 특정화’ 용법에 대해서도 유사한 제안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이 용법의 예를 Song 과 Park(2001)에서 가져온 것이다.

The bottom of the sea

다음은 이 용법의 학습상의 어려움에 대한 Song 과 Park(2001)의 관찰이다.

However, 'Nouns qualified by of-phrase' was found to be the usage type where the two groups have rather low competence around 60%. If the students have ever had the interlanguage rule, 'putting 'the' before nouns qualified by the following phrase,' they seem to be in the stage where they know that there exist cases where they should not put 'the' before nouns qualified by of-phrase but do not fully understand where they should not.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of-어구가 그 앞에 오는 명사 표현을 수식하는 경우, 해당 명사 앞에는 정관사가 쓰이기도 하고 부정관사가 쓰이기도 한다. 다음은 ‘고급영문법해설’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런데 of+명사구의 수식을 받은 명사가 얼마만큼 한정 내지 특정화되느냐에 따라 정관사의 부가는 달라질 수 있다.

The result of the competition will soon be announced.

cf. as a result of the war

영어 학습자들에게 ‘of-어구에 의한 특정화’ 용법이 학습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어떤 경우에는 명사 표현 앞에 정관사가 쓰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정관사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정관사의 교육과 학습에 있어서 ‘대상 확정 가능성’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원만히 해소할 수 있다. ‘대상 확정 가능성’이라는 정관사의 개념 특징을 파악한 학습자들은 언제 정관사가 사용되는가에 대한 언어적 직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정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관사의 핵심적 본질을 학습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관사의 언어적 특징을—개별 문법 항목의 목록이 아니라—언어 전반적인 체계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영어의 정관사 교육과 학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사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문법 현상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비단 정관사의 학습과 교육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양현권(2008)에서는 ‘교육을 위한 문법(Pedagogical Grammar)’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문법론(Educational Grammar)’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어 현상 또는 문법 정보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또한, 교육문법론에 따르면, 문법 정보 및 언어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외국어 교육을 보다 원리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본적 기반이 된다.

참고문헌

- 강행구. (2001). 『영어관사의 체계와 습득의 실제』. 서울: 경진문화사.
- 김학엽. (1991). *한국어 화자의 영어 관사 사용의 오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 문 용. (1987). 『고급영문법해설』. 서울, 박영사.
- 박기화. (1994). *외국어로서의 영어 관사 기능의 습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신용진. (1980). *영어 학습자의 오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전주.
- 양현권, (2008). *교육문법론과 영어 교육*, 양현권, 정영국(편). 『교육영문법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Berry, R. (1993). *Articles: Collins cobuild English guides*.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 Butler, Y. G. (2002). Second language learners' theories on the use of English article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4, 451-480.
- Celci-Murcia, M. & Larsen-Freeman, D. (1999). *The Grammar Book*. Boston, MA: Heinle & Heinle.
- Hawkins, J. (1978). *Definiteness and indefiniteness: A study in reference and grammaticality prediction*. London: Croom Helm.
- Murphy, R. (1994). *English grammar in u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Longman.

-
- Song, M. & Park, S. (2001). The use of the definite article by Korean EFL college learners. *Foreign Language Education*, 8(2). 45-67.
- Whitman, R. L. (1974). Teaching the article in English. *TESOL Quarterly*, 8, 253-262.